

보풀, 먼지까지 말끔히!

밀레, 10kg 허니컴 드럼 의류건조기 출시

- 퍼펙트 건조시스템 탑재... 잔존 수분량 실시간으로 확인, 최상의 건조 결과물 제공
- 3개의 미세 보풀 필터 장착... 의류, 신발 등 세탁물에 남은 보풀, 먼지까지 걸러내 줘
- 총 11개의 인텔리전트 특수 건조 프로그램 장착... 다양한 섬유소재까지 건조 가능

독일명품가전 밀레코리아(대표 안규문, www.miele.co.kr)는 ‘퍼펙트 건조시스템’ 탑재로 세탁물을 주름 없이 빠른 시간 내 건조시켜주는 ‘10kg대 허니컴 드럼 의류건조기’ 2종 (모델명:T8822C, T9646C)을 출시한다.

이번 출시한 신제품은 벌집모양의 ‘허니컴 드럼’과 ‘퍼펙트 건조시스템’ 탑재로 세탁물을 주름 없이 골고루, 빠른 시간 내 세탁물을 건조시켜주고, 3개의 ‘미세 보풀 필터’와 ‘고온 열풍’으로 세탁물에 남아있는 보풀이나 먼지까지 말끔히 제거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허니컴 드럼 의류건조기’의 가장 큰 특징인 ‘퍼펙트 건조시스템’은 세탁물의 잔존수분량을 전자식으로 측정, 건조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서로 다른 세탁물의 특성에서도 만족스런 건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 허니컴 드럼 내부표면의 오목한 벌집모양에 공기층이 형성돼 쿠션효과로 인해 옷감이 보호되고, 건조 후 주름방지효과가 탁월하다. 따라서 다림질하기에 수월하다. 뿐만 아니라 벌집모양은 견인효과도 있어 세탁물을 위로 끌어올려 따뜻한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고, 공기와 수분이 잘 교환되도록 이끌어 주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허니컴 드럼 의류건조기 장착된 ‘인텔리전트 특수 건조프로그램’은 합성의류, 섬세의류, 울, 데님, 셔츠, 방수 등 총 11개의 섬유소재에 알맞은 다양한 특수 건조프로그램이 장착돼 있어 버튼 한번이면 세탁물 소재에 따라 간편하게 건조가 가능하다. 또 섬세섬유용 ‘스무드 건조 기능’과 일반 의류용 ‘단축 기능’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어, 의류에 맞는 적절한 온도로 건조가 가능하다.

이밖에 신제품은 70℃ 이상의 온도로 세탁물을 지속적으로 건조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에 직접 닿는 면 소재나 기타 의류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을 대부분 제거해 줘 아이들이나 피부에 민감한 사용자에게 위생적이며, 건조기 내부에 신발 건조대를 별도로 장착할 수 있어 건조가 편리하다.

허니컴 드럼 의류건조기의 외관은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법랑식 에나멜코팅을 채택해 품질을 높였으며, 가격은 T8822C 모델이 228만원, T9646C 모델이 258만원이다.

(끝)

모델명	T8822C	T9646C
제품사진		
소비자가격 (VAT 포함)	228 만원	258만원